

## 동양에 있어서의 인삼재배 역사

# The history of ginseng cultivation in Orient

고승태\*

Koh, Seungtae\*

### Abstract

Ginseng has been recognized as a lifespan extending medicine which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edicines classified as top medicines, as the Boncho (medical herbs) study which is influenced by the idea of guidance's costume and food concept mainly in China is gaining its bona fide form. As the demand for ginseng has been expanded to other levels, the demand for ginseng has been increasing. Ginseng from the nature reached its supply chain limit due to its extinction and difficulty of picking, so it translated into ginseng cultivation of economy rather than harvesting in nature. After the start of ginseng cultivation, the ginseng cultivation was further enhanced by the rapid development of processing methods such as white-ginseng and red-ginseng, and the surge of consumption due to the traditional belief in ginseng drug efficacy and support of scientific research. In the Joseon Dynasty, the name Gasam (cultivated ginseng) had been created as ginseng was cultivated on farmland after the stage of SanYang (wild cultivated ginseng), the purpose of the new name Gasam is to differentiate from natural ginseng, and natural ginseng lost its firm position as the genuine ginseng as the Gasam replaced the genuine ginseng, and the natural ginseng got a new name of SanSam (wild ginseng). Because the real ginseng substance concept dissipated, and as Gasam is being called ginseng, the name Gasam was also disappeared. As a result, it was possible to grow large quantities according to the arrival of the Gasam era, and it was possible to supply the demand for ginseng, and it could become one agricultural industry. In this ginseng cultivation, in Japan where ginseng did not grow naturally, it was difficult to obtain ginseng from Joseon and faced with a shortage of ginseng at all times. Therefore, the shogun cultivated the Gasam systematically at the national level by the inside of the shogunate. However, since the natural ginseng is native to China and Korea, there is a concern about the deterioration of the quality of natural ginseng due to the incorporation of cultivated ginseng (Gasam). To protect the interests, the cultivation of ginseng was subject to control. For this reason, the lack of historical information on Gasam cultivation, which had to be started secretly, would be a natural result. In this paper, although not sufficient enough, the historical informations were used to summarize the history of ginseng cultivation in China, Japan and Korea.

**Keywords:** Ginseng cultivation history, gasam history, cultured ginseng history, ginseng cultivation background

\*동양대학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Professor, Department of Bio-Chemical Engineering, Dongyang University, Korea)

E-mail: kohnet@dyu.ac.kr

## I. 들어가며

동양에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선도(仙道) 사상의 복식(服食)의 영향을 받은 본초학(本草學)이 형태를 갖추어가면서 인삼은 연명(延命)의 약물로 분류된 상약(上藥)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지닌 약성에 따라 만병통치약으로 사용되어 왔다. 특수계급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인삼 수요가 다른 층으로 확대되면서 그 수요가 증가한 위에, 무분별한 채취에 따른 멸절(滅絶) 및 채취의 어려움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자연산 인삼으로는 공급의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자연히 힘든 자연산 인삼의 채취보다는 가성비 높은 인삼재배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인삼재배가 시작된 후에는 백삼, 홍삼 등의 가공제법의 개발과 인삼약효에 대한 전통적 믿음 및 과학적인 연구의 지원에 힘입은 소비량의 급증에 따라 인삼재배에 더욱 힘쓰게 되었다.

조선에서는 산양(山養)의 단계를 거쳐 농토에 본격적으로 삼포를 만들어 인삼을 재배하는 가삼(家蔘)시대가 열리면서, 자연산 인삼과의 구별을 위해 가삼(家蔘)이라는 명칭이 새로이 생겨났으며, 시일이 흐르면서 인삼의 자리를 확고히 지켜왔던 자연산 인삼은 그 명칭을 가삼에 빼앗기고 산삼이란 이름으로 바뀌게 되어, 인삼이란 대상이 없어짐에 따라 가삼이 인삼으로 불리게 되면서 가삼이란 명칭도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결과론적으로 가삼시대의 도래에 따라 대량재배가 가능하게 되어 인삼에 대한 수요를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하나의 농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 가삼재배에 있어, 인삼이 자생하지 않았던 일본에서는 조선을 통해 어렵게 인삼을 조달하면서 항시 인삼 부족에 직면하였던 관계로 막부(幕府)의 내명(內命)에 의해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가삼재배를 추진하였기에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다 남아있어 인삼 재배가 시작된 연도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으나, 중국과 한국에서는 자연산 인삼이 자생하였으므로 재배인삼(가삼)의 혼입에 의한 자연산 인삼의 품질 저하에 대한 우려와 기 구축된 자연산 인삼 유통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가삼재배는 단속대상이었다. 이런 까닭에 비밀리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가삼재배에 대한 사료(史料)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많이 부족한 사료이지만, 그 사료를 통해 중국, 일본 및 한국에서의 인삼재배 역사에 대해 정리하였다.

## II. 각 국에 있어서의 인삼재배 역사

### 1. 중국

당대(唐代)에서는 농경지의 개간과 농법의 보급을 장려하기 위해 《뇌사경(耒耜經)》이라는 농서를 저술한 육구몽(陸龜蒙)<sup>1)</sup>의 시(詩)에 나오는 내용이 유일한 인삼재배 관련 사료(史料)이다.

#### 화제달상인약포(和題達上人藥圃)

『흠정패문재영물시선(欽定佩文齋詠物詩選)』

藥味多從遠客賚

약초 맛 많이도 먼데 사는 손님이 가져오는데

旋添花圃漸成畦

꽃밭에다 보태어서 점점 밭이랑을 이루네.

三椹舊種根應異

세 가장귀<sup>2)</sup> 옛날에 심은 것 뿌리가 웅당 색다르고

九節初移葉尚低

아홉 마디 처음 옮김에 잎이 오히려 낮도다.

山莢便和幽澗石

산의 명협은 문득 그윽한 시내 돌에 섞여 있고

水芝須帶本池泥

물 지초는 모름지기 본래 못의 진흙 띠어있네.

從今直到清秋日

지금으로부터 곧장 맑은 가을날에 이르기까지

又有香苗幾畚齊

또한 향기 나는 싹이 있어 몇 삼태기애나 가지런한가?

육구몽(陸龜蒙)은 의종(懿宗), 희종(僖宗) 시대의 장흥(長興) 사람으로 송강(松江) 보리(甫里)에 머물면서, 세속과는 교류를 하지 않으며 고결한 선비로 있으면서, 부름을 받아도 응하지 않고, 고저산(顧渚山) 아래에 원(園)을 만

<sup>1)</sup>?~881(추정)

<sup>2)</sup>『본초강목(本草綱目)』을 보면 고려(高麗) 사람이 지은 인삼찬(人參贊)에 “三椹五葉 背陽向陰”이라 하여 세 가장귀 다섯 잎이 양지를 등지고 음지를 향하네. 라고 노래하였다.

들고 여유를 즐기며 세월을 보냈다. 시에 나오는 삼아(三槩)라 나온 것이 인삼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이마무라씨는 시의 구에서 생각해 보면, 장흥(長興) 땅은 절강성(浙江省) 내에 있고, 인삼의 재배에는 적합하지 않는 위도에 있으므로, 고구려 또는 산서(山西) 태행(太行)산맥의 산지로부터 뿌리를 입수해 와서 재배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술하였다.<sup>3)</sup>

중국 북송(北宋)의 문신으로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인 동파(東坡) 소식(蘇軾)<sup>4)</sup>의 시에도 아래와 같이 인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소식오언고시(蘇軾五言古詩)에

### 소포(小圃)인삼

『흠정패문재영물시선(欽定佩文齋詠物詩選)』

上黨天下脊 상당 지역<sup>5)</sup>은 천하의 등뼈이고  
遼東眞井底 요동 지방은 참으로 샘이 낮구나.  
玄泉傾海腴 깊은 샘물 바다의 기름기(인삼)에 기울이고  
白露灑天醴 흰 이슬 하늘의 단술(인삼)에 뿌리네.  
靈苗此孕毓 신령스런 어린 싹 여기에 잉태하고 길러  
肩膀或具體 어깨와 다리로 그 몸체를 갖추었네.  
移根到羅浮 나무산으로 뿌리를 옮겨 심고  
越水灌清泚 물을 넘겨서 맑디맑은 물을 물대네.  
地殊風雨隔 땅이 별다르니 바람과 비가 막히고  
臭味終祖禰 냄새와 맛이 마침내 조상을 이어받았네.  
靑楹綴紫萼 푸른 가지는 자줏빛 꽃받침으로 엮혔고  
圓實墮紅米 둥근 열매는 붉은 쌀알처럼 떨어지네.  
窮年生意足 한 해가 다 가도록 생기가 넉넉하니  
黃土手自啓 황토에서 손이 절로 열리네.  
上藥無炮炙 상등의 약은 볶고 구울 일 없으니  
齧齧盡根柢 뿌리까지 모두 씹어 먹으면 된다네.  
開心定魂魄 마음을 열어주고 혼백을 안정시키니<sup>6)</sup>  
憂患何足洗 근심과 걱정 어찌 족히 씻어야겠는가?  
糜身輔吾軀 몸통을 푹 고아서 내 몸을 도우니  
旣食首重稽 이미 먹어보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네.

또한 남송(南宋)<sup>7)</sup> 말기 장계(長溪)의 사람인 사고(謝翱)<sup>8)</sup>의 시(詩)에

### 효맹교체(效孟郊體)

移參窗北地 창문 북쪽 땅으로 인삼을 옮겨 심으니  
經歲日不至 한 해가 지나도록 햇살이 비추지 아니하네.  
悠悠荒郊雲 유유히게 거친 들판에 구름이 끼었는데  
背植足陰氣 산을 등지고 심으니 음기가 넉넉하네  
新雨養陳根 봄비는 묵은 뿌리를 기르고  
乃復佐藥餌 이에 다시 약물을 돕는구나.  
天涯葵藿心 하늘가에서 규곽<sup>9)</sup> 같은 일편단심 가지니  
憐爾獨種參 네 홀로 심은 인삼을 어찌며 여기네.

이렇듯 당대(唐代), 송대(宋代)에도 인삼을 가리키는 듯한 식물을 집 가까이 옮겨 심어 키웠다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는 재배라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깊은 산에서 몇 포기 이내를 채취하여 집근처로 옮겨 심은 후 개인의 취미 수준으로 감상한 정도로서 재배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명대(明代)에 들어와서는 이시진(李時珍)<sup>10)</sup>의 『본초강목(本草綱目)』 중 인삼의 조목에 “..... 또한 씨를 거두어서 10월에 파종하는데 채소를 심는 방법과 같이 한다 .....”고 나온다. 또 왕상진(王象晉)의 『군방보(群芳譜)』<sup>11)</sup>에 “.....씨가 익으면 채취하여 10월에 파종하는데, 하나의 채소 씨를 심는 법과 같다. 만약 초봄에 싹이 나오면 뿌리를 옮겨 심어 살린다. ....”고 나온다. 그러나 왕기(王圻)<sup>12)</sup>의 삼재도회(三才圖會)<sup>13)</sup>와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에 나오는 인삼 그림은 실물과 다르고, 개갑에 대한 언급 없이 파종법이 일반 채소 씨를 심는 법과 같다고 한 점을 미루어 보아 명대(明代)에도 본격적인 인삼재배는 시작되지 않았고 일부 시험적 수준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청대(清代)에 있어서의 인삼재배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가장 오래 된 것이 진부요(陳扶搖)의 『비전화경(秘傳花鏡)』

<sup>7)</sup> 1127년~1279년

<sup>8)</sup> 1249년~1295년

<sup>9)</sup> 규곽(葵藿)은 해바라기로 해를 향하는 성질 때문에 옛 사람들은 아랫사람의 윗사람에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에 많이 비유하였다.

<sup>10)</sup> 1518년~1593년

<sup>11)</sup> 1621년 편찬

<sup>12)</sup> 1529년~1612년

<sup>13)</sup> 1565년 편찬

<sup>3)</sup> 인삼사 제4권 73쪽(국역판 89쪽)

<sup>4)</sup> 1036년~1101년

<sup>5)</sup> 상당(上黨)은 기주(冀州) 서남쪽에 있다.

<sup>6)</sup> 인삼의 효능중의 하나가 정신과 혼백(魂魄)을 안정시키고 마음을 열어주며 지혜를 더해주는 것이다(安精神 定魂魄 開心益智)

이다. 이 서적의 저자 머리말에 강희(康熙) 무신(戊辰)<sup>14)</sup>이란 년도를 가리키는 말이 나온다. 진부요는 스스로 화은옹(花隱翁)이라 부르며, 꽃과 나무의 감상에 큰 취미를 갖고 그 일에 일생을 보낸 사람으로 『비전화경(秘傳花鏡)』의 많은 부분은 감상식물에 대한 것으로, 채종·파종·재식·비료·손질 및 그 시기 등에 대해 기술하였으며, 간간히 약초에 대해서도 그러한 내용을 기술하였다. 내용의 대부분은 자신의 실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다. 인삼에 대해 기재되어 있는 것은 화력신재(花曆新栽) 중에 10월이 적당한 파종의 조목에 순무(만청)·인삼·오미자가 나온다. 이마무라씨는 다른 식물에 대해서는 관수(灌水)·복돋기·정돈(整頓)·분재(分栽)·종자의 채취 등을 기술하였지만, 인삼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이, 단지 파종에 대해서만 기술했다는 것은 스스로 재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사실을 인정하고 기술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시대에 인삼재배가 이루어졌다고 기록된 사료가 없는 것으로 보아 명(明)나라 이시진(李時珍)의 『본초강목(本草綱目)』 등 이전에 기술된 내용을 추려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 라고 기술하였다.<sup>15)</sup>

왕사정(王士禎)의 『지북우담(池北偶談)』 24권에 “..... 강희(康熙) 무오(戊午)<sup>16)</sup> 여(予)는 내정(內庭)을 고치고, 예전부터 제도에 응(應)해 어원(御苑) 인삼의 시를 읊고, 정답게 그 나무(樹)를 바라본다. ....”라고 나온다. 북경(北京) 궁전(宮殿)의 정원에 인삼을 재배한 것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성조(聖祖) 황제가 영초(靈草)로서 기이한 볼거리나 감상을 위한 원예(園藝)식물로 취급해서 심는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와 같이 양삼(秧蔘) 또는 양자삼(秧子蔘)이라 불리는<sup>17)</sup> 어린 인삼을 채취해 정원 등에 이식하여 감상하던 것이 점차 집근처의 산중에 대량 이식하여 비밀리에 보호 또는 관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훗날 봉천성(奉天省)에서도 행하여졌는데, 이것이 인삼재배의 발단으로 보인다. 이 양삼(秧蔘)이 관삼(官蔘)에 혼입되면 관삼(官蔘)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는 것과 재배가 번성하게 이루어지면 그 관(官)의 전매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또한 훗날 큰 뿌리로 성장할 어린뿌리를 아깝게도 모두 채취

해버리는 피해 때문에 아래와 같이 엄한 단속을 하였다는 것을 아래의 사료(史料)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러한 단속이 인삼재배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을 남기지 않게 된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건륭(乾隆) 59년(1794년) 이후 가경(嘉慶), 도광(道光)의 연대를 통해 수회에 걸쳐 제정 공포한 인삼 법령 중에 다음과 같은 조항이 나온다.

① 길림(吉林) 지방에 있어서는 사삼(私蔘)<sup>18)</sup>의 단속을 위해 잡윤(卡倫)<sup>19)</sup> 106개소를 설치하고, 수시로 담당 지역의 산림을 순찰하여 범인을 검거할 것

대규모의 재배자를 검거한 때는 즉시 상부로 보고할 것. 소규모의 재배 및 재종(栽種)이 없는 경우는 년 1회 종합하여 보고할 것. 인삼재배 시기인 매년 봄에는 관병(官兵)을 파견하여 산림을 대수색 할 것

② 모든 산림에서 흔적을 숨기면서 양삼(秧蔘)을 재종(栽種)하는 자는 검거하여 죄를 다스릴 것

③ 관삼(官蔘)에 양삼(秧蔘)이 혼입된 것이 발견될 시에는 그 재종(栽種)지방의 책임자와 수납에 담당하는 관리 및 그 감독의 장을 처벌하고, 인삼 제출자에게 교환을 명하거나 변상금을 징수한다. 그 변상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취급관에서 변상할 것.

④ 성경성(盛京省) 연안 및 산둥성(山東省) 연안(沿岸)에 있어서, 수시로 대수색을 하여 사삼(私蔘)을 단속할 것. 발견된 경우는 해당지방 군관(軍官)의 책임자를 처벌할 것.

또한 청대(清代)에서 관리와 군인 등이 범한 직무 태만 행위에서, 가장 엄중하게 책임을 묻은 3항목 중에도 아래와 같이 양삼 재배 단속이 들어가 있다.

- 묘삼을 몰래 재배하는 자가 있는 경우

흥정호부칙례(欽定戶部則例)에는 다음과 같은 조항이 들어있다.

- 종자(種子)로 하는 인삼재배에 대한 단속

① 인삼 종자를 몰래 재배하는 지방에 대해서는 해당 장군(將軍) 및 부도통(副都統), 부윤(府尹) 등을 독려하여, 그 지방에 문무관을 파견하여 불시에 사찰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북경(北京)의 호부(戶部)에 보고하도록 한다. 만약에 관리(官吏)가 사찰(查察)을 충분히 하지 않아,

<sup>14)</sup> 강희 14년, 즉 1675년

<sup>15)</sup> 인삼사제4권 78쪽(국역판 94쪽)

<sup>16)</sup> 17년, 즉 1678년

<sup>17)</sup> 양삼(秧蔘)은 훗날 두둑을 만들어 재배하는 인삼의 명칭으로 된다.

<sup>18)</sup> 사삼(私蔘)이라 불리는 것은 관의 법령을 위배하며 재배한 인삼 및 그 밀매품 또는 자연산 인삼의 밀매품을 총칭함

<sup>19)</sup> 관문(關門) 등지에 있는 병사의 주둔지



뒷날 은밀히 인삼을 심는 자 또는 위법을 알면서도 그 밀 재배를 묵인하는 등의 폐가 밝혀지면, 해당지방관은 인삼 검사의 규정에 따라 그 태만함의 경중을 구별하여, 관급을 낮추거나 면관시키는 벌을 내린다. 위의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거나, 지방관과 공모하여 정실(情實) 때문에 범행을 은폐한 자에 대해서는 지방관과 함께 징계를 주청하여 전의(詮議)<sup>20)</sup>한다.

② 비밀리 인삼을 재배하는 자는 전례에 따라 구변(究辯)하며, 해당 장군 등이 그 범행을 스스로 조사하여 밝힌 때에는 그 처분을 면하나, 다른 사람에 의해 고발된 경우에는 모두 의처(議處)에 부친다.

길림(吉林)·성경(盛京)의 광활하고도 깊은 산중에서 밀 재배가 성행하였기 때문에 이처럼 단속을 강화하였을 것이다.<sup>21)</sup>

함풍(咸豐) 3년(1853년)에 만주의 인삼 관채(官採)를 정지시키고, 채취자부터 세은(稅銀)을 징수하여 원하는 대로 몇 명이라도 입산하여 채취하게 한 이후부터는 인삼 밀 재배에 대한 금지가 풀어졌기 때문에<sup>22)</sup> 밀채인은 증가하였고, 그 후에는 재배 인삼품에서도 세금을 징수하도록 하면서, 이를 오히려 묵인하게 되었기 때문에 재배자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이다.

『길림지리지(吉林地理記要)』에 “..... 일반인들은 삼영(蔘營)을 봉추영(棒椎營)이라 부르는데 인삼을 심는 구역이다. 재배되는 것은 양자삼(秧子蔘)이라 부른다. 삼영(蔘營)이 만들어진 것은 이미 여러 해가 지났다. 도함(道咸)<sup>23)</sup> 이전에 금지령이 만들어져 관리가 병사를 데리고 구(溝)<sup>24)</sup>를 깨끗이 태워 없앴다. 세금을 징수하게 된 후에는 이러한 걱정은 없어졌다. ....” 라고 나온다.

『장백산강강지략(長白山江崗誌略)』에 “..... 생각건대 양강(兩崗)의 삼원(蔘園)이 대단히 많고, 동치(同治) 연대에는 연간 4백호 정도 있었다. 광서(光緒) 27년(1901년) 오랑캐(鬮匪)로 인하여 편안하지 못하게 되자, 상업이 침체되어 현재 2백호 정도 있다. ....”고 나온다.

결국 중국에 있어서의 인삼재배 시작 연대를 알 수 있는 사료(史料)는 없다. 그렇지만 앞에서 기술한 사료를 통하여, 그 변천(變遷)이 명확하지 않다하더라도 최초의 재배는 건륭(乾隆) 중기 이후부터 말기 사이에 인삼채취업자에 의해 산양삼 재배방법에 따라 소규모로 시작해서, 가경(嘉慶)과 도광(道光)<sup>25)</sup>의 연대에 그 규모가 커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2. 일본

일본에는 조선이나 중국처럼 인삼이 자생하지 않아 조선이나 중국으로부터 인삼을 어렵게 입수하여 약재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삼의 부족량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조선으로부터 건너오는 인삼량을 늘리기 위해 조선 정부와 교섭을 했으며<sup>26)</sup>, 인삼이 아닌 타케부시닌징(竹節人蔘)을 인삼대용으로 사용하면서, 결국에는 막부(幕府)에서 교호(享保)연대<sup>27)</sup> 초기에 계획적으로 인삼재배를 위해 조선이나 중국에서 생삼이나 씨앗을 어렵게 입수하여 재배를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다는 것이 [쓰시마분쇼(對馬文書)]에 기록되어 있다.<sup>28)</sup>

”엔쿄우(延亨) 3년(1746년) 병인(丙寅) 4월 4일

오가사와라 이와미노가미(小笠原 石見守)의 용인(用人)인 후지무라 신베에(藤村 新兵衛)로부터 서신이 왔으며, 이전에 인삼 생근(生根)이 몇 회나 헌상되었으며, 또한 그것이 언제 누구에게 보내진 것인지 이와미노가미(石見守)님께서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는 내용이였다. 오늘 아래와 같이 적은 서신을 덧붙여서 신베에(新兵衛)에게 보냈다.

위의 헌상(獻上)을 할 때 마다 로우쥬우(老中)가 쇼군(將軍)에게 피로(披露)하였다는 것을 각기 서면(書面)으로 쓰시마노가미(對馬守)에게 알렸다.”

이는 막부(幕府)의 비밀스런 명(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위의 생근 중 일부는 에도(江戸)에 있는 막부의 약원 및 코이시카와(小石川) 약원 등에 식재하였으나 그 후의 경과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것으로 보아 활착하지 못하고 도중에 죽어버린 것으로 추정된다. 13년(1728년) 11월 13일에 조선으로부터 건너 온 종자 60여알이 식재된 곳은

<sup>20)</sup> 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죄의 흔적을 따져서 밝힘

<sup>21)</sup> 인삼사 제2권 부록-흥정호부칙례(欽定戶部則例) 300쪽~301쪽 (국역판 318쪽)

<sup>22)</sup> 광서(光緒) 7년 장군인 명안(銘安)이 깊이 생각하여 인삼과 그의 약초의 채취를 금지했던 것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그것에 세금을 과세하여 적폐(積弊)를 없앨 것을 상소하였다.

<sup>23)</sup> 도광(道光, 1821년~1850년), 함풍(咸豐, 1851년~1861년) 연대

<sup>24)</sup> 산중의 인삼재배지역

<sup>25)</sup> 1821~1850년

<sup>26)</sup> 인삼사 제2권 43-47쪽(국역판 58~63쪽)

<sup>27)</sup> 1716년~1735년

<sup>28)</sup> 인삼사 제4권 240쪽(국역판 244쪽)

## 조선 인삼재배를 위한 시도

	교호(享保)	내용	받은 사람
①	6년(1721년) 10월 25일	생근 3뿌리	미즈노 이즈미노가미(水野 和泉守)
②	7년(1722년) 1월 26일	생근 6뿌리	미즈노 이즈미노가미(水野 和泉守) 미즈노 이즈미노가미(水野和泉守)
③	12년(1727년) 12월 9일	생근 4뿌리	3뿌리는 조선에서 가지고와서 쓰시마(對馬)에 심은 인삼 1뿌리는 쓰시마(對馬)에 심어 싹이 난 인삼
④	12년(1727년) 12월 28일	생근 7뿌리	미즈노 이즈미노가미(水野 和泉守)
⑤	13년(1728년)	생근 8뿌리	미즈노 이즈미노가미(水野和泉守)
⑥	13년(1728년) 11월 13일	씨앗 60알	미즈노 이즈미노가미(水野 和泉守)

닛코(日光)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1729년부터는 조선이나 중국으로부터 생인삼이나 종자가 건너온 기록이 전혀 없었는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1738년에 닛코(日光)에서 재배한 인삼의 번식이 잘되어 아래와 같이 조선인삼 종자인 오타네(御種) 즉 조정에서인삼 씨앗이 많이 수확되어 판매한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다.

“겐분(元文) 3년(1738년) 5월

닛코(日光)에서 조선인삼의 열매가 많이 달렸기에 받은 사람도 있었고, 그것을 원했지만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아무튼 많은 것은 사실이다. 무차별적으로 주면, 정말 원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받으려 할 것이므로, 이번에 혼고 꾸쵸(本石町) 쯤젠다나(十軒店)에 있는 상인(商人)인 오까히고(岡肥後)의 상점에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희망하는 사람은 구입할 수 있다. 《규우세이후오닷시도메(舊政府御達留)》고우기오후레도메(公儀御觸留)》”

1735년경부터는 약원(藥園)의 시험재배 단계를 넘어 일본 전역의 주요 번(藩)에서 인삼재배를 하게 되었으며, 사우미 나오하치(左右 見直八)가 쓴 [마쯔다이러 군잔(松平 君山)옹의 본초(本草)에 있어서]<sup>29)</sup>에 재배상의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이에 의하면, 1763년에는 오와리번(尾張藩)에 “..... 인삼 씨 4만 개를 심을 장소가 마련되었다. ....”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가삼재배의 시

작은 조선으로부터 인삼 종자 60알이 입수된 1728년의 다음해인 1729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 3. 한국

한국에 있어서의 가삼 역사에 대한 자료는 조선왕조실록과 그 외로 소수의 서적과 구전(口傳)이 있으나, 어느 사료(史料)나 가삼 역사를 밝히기에는 그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 먼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가삼관련 내용을 적취하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정조 14년(1790년) 4월 30일, 우의정 김종수, 비국 유사 당상(備局有司堂上) 정민시(鄭民始)·이문원(李文源), 병조 판서 이갑(李埜), 이조 참판 이병정(李秉鼎), 북도 암행어사 서영보(徐榮輔)를 불러 접견하는 중에 김종수가 아뢰기를, “.....신이 지금 약원(藥院)에서 일을 보면서 들으니, 나삼(羅蓼)이 극히 귀해지는 폐단 역시 영남(嶺南) 감영의 관속과 독점 상인배가 이권을 독점하고 조종하기 때문이며, 5~6배의 높은 값으로 사서 진상하는 것도 모두 가삼(家蓼)이기 때문에 계속 퇴짜를 맞는다고 하니, 일이 극히 한심합니다. .... ” 「정조실록」

이 기록이 조선왕조실록에 나오는 가삼에 대한 첫 기록으로, 이미 가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2) 정조 14년(1790년) 7월 25일, 내의원 제조 홍억(洪億)이 아뢰기를, “어전에 쓰는 약에 관한 일은 이 얼마나 엄중

<sup>29)</sup> 쇼와(昭和) 9년(1934년) 9월 본초(本草) 24호

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한번 가삼(家蔘)이 성행한 뒤로는 경상도와 원춘도(原春道)에서 봉진(奉進)한 것이 대부분 가삼입니다. 특히 원춘도의 경우는 가삼을 첩첩이 덧놓아 온갖 교묘한 방법을 내었으니, 일의 체모를 헤아려 보면 실로 해괴하기 그지없습니다. 겨울 분을 봉진할 때부터는 각별히 살펴 선택함으로써 죄에 저촉되는 일이 없게 하라는 뜻으로 두 도의 감사에게 신칙하기 바랍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인삼에 관한 정사가 갈수록 구차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관동 등의 고을에 하나의 명산을 인삼밭으로 만들고 빙 둘러 봉전(封田)하기를 황장목(黃腸木)의 예와 같이 한다면 10년이 못 되어 인삼을 이루 다 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라고 나온다.

이는 이미 가삼재배가 상당히 이루어져 봉진하는 물품까지 가삼으로 했다는 내용은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인삼밭이란 표현은 이미 가삼재배가 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하는 것이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조 14년(1790년) 8월 9일, 양산 군수 남학문이 군사에 관한 폐단 등을 상소하였다

“영남은 예로부터 산삼(産蔘) 고장으로 일컬어져왔으나, 근래에는 산삼이 점점 귀해져 집에서 심는 것이 가종(家種)의 흐름으로 되었습니다. 지금 본 고을에 부임하여 들으니 춘기에 바칠 산삼이 세 차례나 약원(藥院)으로부터 퇴짜를 맞았다고 하기에, 그 까닭을 물으니 담당관이 삼상(蔘商)에 속아서 산에서 나온 삼과 집에서 키운 삼의 합조(合調) 인삼을 사서 바쳤기 때문에 누차 퇴짜를 맞았고 결국에는 서울 약국에서 사서 바쳤다고 합니다.” 라고 나온다.

이로부터 1790년에는 영남에서는 이미 인삼재배가 일반적으로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정조 15년(1791년) 2월 20일, 평안도 관찰사 심이지의 장계로 강계(江界)의 네 가지 폐단에 대해 아뢰기를, “삼이 영묘한 약초이긴 하지만 역시 사람의 힘으로 기를 수 있는 것이니, 영남 지방에서의 집에서 심어 기르는 방법을 배울 만합니다. 평안 감사로 하여금 각 고을에 신칙해서 거행하도록 하소서.” 라고 나온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영남지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삼재배를 인삼폐단을 없애기 위하여 조정에서 행정력을 통하여 평안도에도 보급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1791년

에 조정에서도 가삼재배를 인정하며 영남 이외의 지역으로 보급시키려는 것을 알 수 있다.

5) 정조 15년(1791년) 10월 20일, 대사간 신기(申耆)가 상소하여 네 가지 폐단을 아뢰고 천주학의 엄금을 청하는 가운데, “첫째로.... 어약(御藥)은 관계되는 바가 막중한데 가삼(家蔘)을 가짜로 만들어도 끝내 적발하지 않으며, 연경의 사행에는 본디 금지하는 물품이 있는데 금은보화를 마치 당연히 들여올 것처럼 가져옵니다.”

6) 정조 19년(1795년) 11월 27일, 양주익의 상소에 따라 인재 등용, 수령의 차임, 인삼의 폐해 등에 관해 하교하는 가운데, “자미(紫微)와 가음(槿蔭)은 예로부터 신령스러운 풀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일컬어져 왔는데, 《본초강목(本草綱目)》을 상고해 보면 오직 우리 동방만 그러하다고 한다. 그런데 뿌리가 산에서 경작하다 손상을 입으면 집에서 심은 것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렵고 북쪽으로 실어가는 밀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다 남쪽에 선물로 줄 것도 계속 대기가 어려운 탓으로 값이 날로 치솟으면서 폐단이 날로 급증하고 있다. 심지어는 당당하게 어약(御藥)으로 쓰는 것에도 삼생(蔘生)이니 삼교(蔘校)니 삼호(蔘戶)니 하는 칭호까지 있게 되었으니 외설스러운 것은 물론이요 정말 형편없기 그지없다. 그러나 서울에서 공납(貢納)하게 하기도 의논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보면, 그 폐단을 또한 어떻게 바로잡아야 한단 말인가?”

7) 정조 21년(1797년) 2월 22일, 비변사가 아뢰기를, “연초에 현릉원에 행차하였을 때 화성<sup>30)</sup>의 성안을 부실(富實)하게 하라는 전교를 내렸는데, 간곡하고 자세하였습니다. 명을 받들어 이행하여 주상의 뜻을 선양하는 일은 낭묘(廊廟)의 책임인데, 지금 시행할 만한 한두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모혈(帽穴)에 관한 일이며 또 하나는 가삼(家蔘)에 관한 일입니다. 모자(帽子)는 공물(公物)이기는 하나 이미 개인 장사꾼에게 주어서 그들이 마음대로 산매(散賣)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적으로 화성에 그 권한을 주어 연경(燕京)의 시장에서 사오거나 의주(義州)의 점포에서 사들여 화성의 시가에 따라 산매한다면 각처의 장사꾼들이 저절로 모여들 것입니다.

가삼은 사사로운 물화(物貨)이기는 하나 본래부터 부호(富戶)들이 전적으로 상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이것도 화성에 예측시켜 화성 시장에 모이지 않고는 매매할 수 없도록

<sup>30)</sup> 지금의 수원



할 경우 이윤이 생기는 곳이므로 물주(物主)와 부호들이 틀림없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마을 거리가 저절로 들어차게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자연 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절목(節目)을 만들어 준행하도록 하소서."

.... 정민시(鄭民始)가 아뢰기를,

"연경에 갈 때 가져가는 물건은 원래 인삼을 썼는데, 이 일이 《통문관지(通門館志)》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은으로 바꾼 것은 삼은 귀하고 은은 넉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은화가 품귀해져 역관들이 그들의 포대를 채울 수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오고 맙니다. 삼은 집에서 심기 때문에 숨겨 가지고 가는 것이 점점 많아지는데, 금법을 무릅쓰고 숨겨 가지고 가게 하느니보다는 차라리 옛날의 예에 따라 가져가도록 허락하는 것이 양쪽 다 편리하겠습니다."

8) 정조 21년(1797년) 3월 14일, 사역원 도제조 김이소(金履素)를 불러 관생들의 조잔한 폐단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이소가 아뢰기를, "역관들이 팔포에 삼을 쓰는 것은 고례(古例)가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번 삼이 귀해진 뒤로 은으로 대신하였는데 이는 한때의 편의에 따라 나온 정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근래에는 집에서 재배한 삼(蔘)이 다소 여유가 있고 은을 구할 길은 차츰 어려워져서 역관들은 포대를 채울 길이 없고 밀상들이 숨겨 가지고 가는 삼은 해마다 몇 백 근에 밀 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삼으로 포대를 채우도록 허락하고 몰래 가지고 가는 것을 일체 엄단한다면 새로 실시하는 일이 아니면서 변통성을 갖는 정사가 될 것입니다."

9) 정조 22년(1798년) 6월, 연일현감(延日縣監) 정만석(鄭晩錫)이 영남(嶺南)의 육폐(六弊)라 하며 역폐(役弊), 부폐(賦弊), 적폐(糶弊), 해폐(海弊), 산폐(山弊), 삼폐(蔘弊)에 대해서 상소하였다. "..... 그 삼폐(蔘弊)라는 것은 근래 산에서 채취하는 것은 점차 드물어지고 집에서 심는 것이 매우 많아졌습니다. 예로부터 나삼(羅蔘)이라 부르는 것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삼상(蔘商) 무리들이 심약(審藥, 官名)과 은밀히 결탁하여 자신들이 파는 것이 아니면....."

10) 정조 23년(1799년) 3월 18일, 강원 감사 윤필병(尹弼秉)이 비변사에 공문에 대해, 좌의정 이병모(李秉模)가 아뢰기를, "지금의 삼정(蔘政)은 실로 구차하고 어렵습니다.

만일 이 삼의 품질이 좋고 많이 캐기만 한다면 과연 그만 둘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삼의 품질이 육지의 삼에 비하여 매우 형편없고, 집에서 재배한 삼보다 나은 점도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쟁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두 번 가서 캔 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충분히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폐단을 끼치는 것이 이와 같으니, 수색하는 것은 전과 같이 영장과 만호를 차레대로 보내 거행하게 하고, 채삼군을 들여보내는 것은 지금 우선 그냥 놔두는 것이 사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11) 「순조실록(純祖實錄)」 21년(1821년) 11월, 개성(開城) 유수(留守) 오한원(吳翰源)의 상소(上疏)에, "..... 신(臣)이 삼가 살펴보니, 관하(管下)의 많은 주민이 인삼 재배를 업으로 삼고 있는데 매년 북경(北京)에 들어가는 홍삼(紅蔘)은 오로지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

12) 현종 9년(1843년) 10월 13일, 중희당(重熙堂)에서 약원 제조(藥院提調)와 판부사(判府事)·영흥 부원군(永興府院君)을 소견(召見)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조인영(趙寅永)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공상(貢上)하는 것 가운데 더할 수 없이 중대한 것은 나삼(羅蔘)보다 더한 것이 없는데, 근년 이래로 간사한 폐단이 거듭 일어나 조삼(造蔘)<sup>31)</sup>에 이르러 극진하였습니다. 산삼(山蔘)의 꼭지를 가삼(家蔘)에 붙이므로 진품이라는 것은 현존하는 것이 아주 없으니, 이것은 크게 징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뒤로 가삼에 붙인 것이 드러나는 자가 있으면, 그 삼상(蔘商)은 단연코 일률(一律)<sup>32)</sup>로 시행해야 마땅합니다."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조선왕조실록에 기술된 내용만 본다면, 가삼(家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정조(正朝) 14년인 1790년에 처음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때는 이미 가삼재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에 기술된 내용인 "한번 가삼(家蔘)이 성행한 뒤로는 경상도와 원춘도(原春道)에서 봉진한 것이 대부분 가삼입니다"를 통해 1790년에는 경상도와 원춘도에서는 가삼이 상당 수준으로 재배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인삼(산삼)과 혼재되는 가삼에 대한 불편함도 알 수 있다. 또한 11)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이미 순조(純祖) 중반인 1820년 이전에 이미 전국적으로 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당시의 상황에서 봤을 때, 자연산 인삼(산삼)에 대

<sup>31)</sup> 산삼과 가삼을 부분적으로 잘라 붙이거나 하여 만든 인삼

<sup>32)</sup> 사형



한 약효의 혼란 및 인삼(산삼)에 대한 기득권으로부터의 반발에 의한 국가적 단속 등에 의해 비밀리 재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사실과 그러한 가삼이 중앙 조정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지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일을 필요로 하였을 것이므로 실록이외의 사료나 구전 등의 사료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13) 화개(花開) 창강(滄江) 김택영(金澤榮)의 「소획당집(韶獲堂集)」,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와 「중경지(中京誌)」(보수(補修)기록)에 기술된 내용으로, “.....그때 전라도 동복현(同福縣)의 한 여자가 산에서 인삼씨앗을 따서, 그것을 밭에 심었다. 최(崔)라는 성을 가진 자가 이를 전해 받아 번식하였다. 이것이 가삼(家蔘)이란 이름의 시작인 것이다. 최(崔)는 모든 사람들이 동삼(東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비밀리 청인(淸人)에게 팔았다. 청인(淸人) 중 아편 연기에 병들은 자들이 인삼을 약으로 사용하였다. 그래서 인삼을 얻으면 매우 진귀한 일로 여겼다. 그러나 이를 복용하고 독에 의해 부작용을 일으켰다. 최(崔)는 그것을 안 후, 인삼을 찌서 팔아 큰 이익을 얻어 전라도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 이것이 홍삼의 시작인 것이다.” 라고 나온다.

이 내용에는 가삼 재배의 시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연대를 알 수 없으며, 최씨가 전라도 제일의 부자가 되었다는 어떠한 사료도 없다. 또한 인삼 독에 의한 부작용이란 내용 및 홍삼 제조의 시작 동기 및 그 내용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결여된 내용으로 판단되며, 홍삼이 제조된 이후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보인다.

14)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에, “..... 아동(我東)<sup>33)</sup>의 가삼(家蔘)은 정조(正祖) 첫해에 시작해서, 순조(純祖) 중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성행되어 일역(一域)에 널리 퍼졌다. 지금은 흔하기가 도라지와 같고, 산삼(山蔘) 역시 산출되지 않는 곳이 없다. ....” 라고 나온다.

정조 첫해가 가삼재배의 시작이라 한다면 1770년대가 한국 가삼역사의 시작이 될 것이다.

15) 일본의 인삼 대가였던 가토겐준(加藤玄順)의 저서 와칸닌진코(和漢人蓂考)에는, 교호(享保) 4년(1719년), 일본의 초청에 의해 조선에서 사람이 왔을 때, 가토겐준(加藤玄順)의 부친인 겐사이(謙齋)가 조선 의관(醫官)인 서초(西樵)에게 인삼재배법에 대한 서신을 보내자,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왔는데, “구멍에 종자(種子)를 심고 육성시

킨다.”라고 답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답변이 실제 조선에서의 인삼재배법에 근거를 둔 답변이라면 조선의 인삼재배 시작 시기를 1600년대로 앞당길 수 있다.

16) 경북 영주에는 1541년 신재 주세봉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후, 중국사신 파견이나 중국 사신의 조선 방문을 위한 인삼채취를 위해 농번기조차 산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실정을 보고 인삼 딸을 채취해오도록 하여 가삼재배가 시작되었다는 구전(口傳)이 내려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은 없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가삼재배를 열었다는 시기가 주세봉 선생이 풍기군수로 부임한 시기와 거의 같으나, 1557년 단양군수로 부임하였던 금계 황준량이 찬한 주세봉 선생 선정비문에 나타난 문귀에서 연계시킬 수 있는 내용은 “흥리혁폐(興利革弊)”뿐인데, 가삼재배 당시의 나라법이 인정하지 못하는 시대이기에 문적으로 남길 수 없는 상황이라 우회적으로 밖에 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를 가삼재배와 직결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17) 우정 이흥로(雨靜 李興魯, 1849~1923)는 경북 봉화 법전사람으로, 퇴계 이황의 스승이자 숙부인 송재 이우선생의 12세손이다. 고종 때 효릉참봉(孝陵參奉)을 지낸 이흥로가 남긴 인삼송이란 시를 통해 주세봉군수의 가삼재배 지도에 대한 구전(口傳)이 사실이라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三枝五葉<sup>34)</sup> 在深山

세 잎자루 다섯 잎이 깊은 산에 있는데,

周世鵬公 培巷間<sup>35)</sup>

주세봉공이 항간에 재배토록 하였다.

諸菜當年 秋結實

모든 채소류는 가을에 결실을 맺는데

爾成唯獨 六年艱<sup>36)</sup>

유독 너는 6년을 어렵게 자라서

補元旺血 除邪氣

원기를 보하고 혈을 왕성하게 하여 나쁜 기운은 없애주고

明目開心 利弱身

눈을 밝게 하고 마음을 열어주어 약한 몸을 이롭게 하니

人類能知 補大益

<sup>34)</sup> 삼지오엽(三枝五葉), 삼아오엽(三椹五葉)은 인삼을 말한다.

<sup>35)</sup> 여기서 항간은 마을 사이의 밭을 의미한다.

<sup>36)</sup> 가삼이 시작된 시대에도 6년근이 재배인삼의 기준이 되었다.

<sup>33)</sup> 우리나라, 조선

몸을 보하여 크게 이롭게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田圭處處植人蔘

밭이랑 곳곳에 인삼을 심는 구나

이흥로의 시가 주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시를 통해 주세봉이 풍기군수 재임시절에 가삼재배를 시작하도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인삼 씨앗은 일반 식물의 씨앗과 달리 개갑을 시키지 않으면 발아하기 어려운 식물이고, 또 6년을 자라야 한다는 내용을 통해, 부임기간인 약 4년을 통해 주세봉 군수가 개갑부터 재배법까지의 전부를 기여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아래와 같은 추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① 부임하기 전부터 인근 산에서의 가삼재배가 어느 단계까지 비밀리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에 대한 관(官)의 비공식적, 묵시적 허용

② 양삼(秧蔘)<sup>37)</sup>을 산삼이 자라는 자연환경과 비슷하게 만든 향간으로의 이식을 지도

③ 개갑을 시키지 않은 상태로 씨를 심는 낮은 밭아울의 초보적 재배를 지도

### III. 나가며

중국에서는 당(唐) 육구몽(陸龜蒙)의 시, 북송(北宋) 소식(蘇軾)의 시 및 남송(南宋) 사고(謝翱)<sup>38)</sup>의 시(詩)의 내용을 보면 이 시대에는 극소수의 사람이 감상을 목적으로 아주 소량의 인삼을 산에서 옮겨 심은 것으로 인삼재배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르며, 명대(明代)에 있어서도 인삼재배에 관계된 내용의 사료는 찾아 볼 수 없다. 청대(清代)에 들어와 건륭(乾隆) 59년(1794년) 이후 가경(嘉慶)에 이르러 어린 인삼을 이식하거나 종자를 뿌려서 재배하는 양삼재배가 유행하여 이를 막기 위한 법령이 여러 차례 제

정된 것을 통해 중국에서의 가삼재배는 건륭 말기인 1780~1790년대로 추정할 수 있다.

일본에서의 가삼재배의 시작은 막부(幕府)의 내명(內命)에 의해 조선과 중국으로부터 수차례 생삼을 입수하여 재배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하고 최종적으로 조선으로부터 인삼씨앗 60여알을 입수한 1728년 11월 13일의 다음 해인 1729년이며, 전국적으로 확대 보급된 것이 1940년대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의 가삼재배의 역사는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정조 첫해인 1776년에 시작한 것으로 되며, 가토겐준(加藤玄順)의 저서 와칸닌진코(和漢人蓐考)의 내용을 근거로 하면 1690년대에서 1700년대 초기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북 영주에서의 주세봉 군수에 대한 구전과 이흥로가 인삼송이란 시를 근거로 한다면 1541~1545년 사이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사료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참고문헌

### 1. 한국어 저작

고승태, 『인삼사 제2권 인삼정치편』 (고문당, 2015).

고승태, 『인삼사 제4권 인삼재배편』 (고문당, 2010).

朝鮮王朝實錄

이규경, 五洲衍文長箋散稿

### 2. 외국어 저작

Imamura. Tomo, 人蔘史 Vol. 2(朝鮮總督府專賣局編, 1935).

Imamura. Tomo, 人蔘史 Vol. 4(朝鮮總督府專賣局編, 1936).

Kato Kenjun, 和漢人蓐考(朝鮮總督府專賣局編, 1938). 對馬文書

Received: December 31, 2018

Accepted: January 24, 2019

<sup>37)</sup> 산에서 자라는 어린 산삼

<sup>38)</sup> 1036~1101년